(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0 (2022. 4.), 87-106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2.4.50.87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마가복음 4:12 번역
— 비유의 목적인가, 결과인가? —

신현우*

1. 시작하는 말

마가복음 4:12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들 중에 속한다. 스트라우스(M. L. Strauss)는 이 구절이 신약성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간주한다.[1] 어번(D. V. Urban)은 이 구절이 성서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라고 간주하기까지 하였다.[2] 이 구절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으며,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구절의 난해성은 번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서로 상충된 번역들이 이루어졌다.

『개역개정』은 마가복음 4:11-12를 다음처럼 번역한다.

>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것은 12절에서 ἵνα가 목적('~하도록')을 뜻한다고 보고 μήποτε도 목적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약학 부교수. hwshin@csu.ac.kr.

1) M. L. Strauss, *Mark*,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4), 184.

2) D. V. Urban, "Obscurity and Intention in Mark 4:11-12: Jesus' Parabolic Purposes", *Calvin Theological Journal* 49 (2014), 112.

(‘~하지 않도록’)을 뜻한다고 본 번역이다. 이와 같이 NRS도 ἵνα를 목적을 뜻한다고 보고 “in order that”으로 번역하였다. ESV, ASV, NKJ 등도 μήποτε를 목적의 뜻으로 보고 “lest”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개역개정』이 12절에서 “이는 ~하게 하려”로 번역한 단어 ἵνα는 ‘그리하여 ~하게 된다’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이다. 또한 12절에서 “못하게 하려 함이라”로 번역된 단어 μήποτε는 ‘그렇지 않다면’(otherwise)이나 ‘아마도’(perhaps)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이다.

NIV는 이러한 가능성을 택하여 ἵνα를 “so that”으로 번역하여 목적 대신 결과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μήποτε를 “otherwise”로 번역한다. 『공동』도 μήποτε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한다.

2021년 말에 신약과 시편 부분이 우선 출간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다음처럼 ἵνα를 결과적인 의미인 “그래서”로 번역하고, μήποτε도 결과적인 의미(otherwise)인 “그러니까 … 못합니다”로 번역한다.

> 11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집니다. 12 그래서 그들이 보고 또 보겠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듣겠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번역의 가능성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 이 논문의 목적은 ἵνα와 μήποτε의 용례와 그것이 마가복음 4:12에서 사용된 문맥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 구절에 관한 적합한 번역을 제시하는 것이다.

2. 마가복음의 ἵνα 용례와 마가복음 4:12의 문맥

마가복음 4:12 해석의 주요 난제는 ἵνα와 관련된다. 이 단어는 목적절을 도입하는 ‘~하려고’의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결과절(‘하게 될 것이다’)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용법 중에 마가복음 4:12 문맥에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마가복음의 ἵνα의 용례를 관찰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음이 파악된다.

2.1. 목적을 표현하는 용례

마가복음에서 ἵνα는 '~하려고'의 뜻으로 사용되어 목적을 표현하는 절을 이끌어 온다고 볼 때 문맥에 부합하고, 기대되는 결과를 표현한다고 볼 때에는 문맥에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마가복음 2:10에서 ἵνα절은 주절 앞에 나오므로 결과절을 끌고 온다고 볼 수 없다.[3] (2) 마가복음 3:2, 10, 14; 4:21; 6:41; 7:9; 8:6; 10:13; 15:11, 15, 20에서 ἵνα절이 이끌어 오는 내용은 주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따라온다고 기대할 수 없는 동작이다.[4] (3) 마가복음 5:12; 12:15에서는 ἵνα절이 끌고 오는 동작이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므로, ἵνα절이 그러한 결과에 관한 기대를 미리 서술하는 절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4) 마가복음 5:18; 6:38; 9:22; 10:48; 12:2, 13; 14:38; 16:1의 경우, ἵνα절이 끌고 오는 동작이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이후 문맥에서 드러나므로 이것이 기대되는 결과를 묘사하는 절이라고 보면 이후에 주어지는 서술과

---

3) 막 2:10에서 ἵνα절은 주절 앞에 위치하므로 결과절로 볼 수 없다. 이 절은 예수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4) (1) 막 3:2에서 ἵνα는 사람들이 예수가 치유하시는지 않는지 관찰한 동작과 연결되어 있다. 만일 치유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없기에 ἵνα절이 끌고 오는 고발은 사람들이 관찰한 결과가 될 수 없고 관찰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막 3:10에서도 ἵνα는 목적 용법으로 볼 때 문맥에 맞는다. 예수를 향하여 넘어진 결과 우연히 예수를 만지게 되었음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3) 막 3:14에서는 ἵνα가 2회 등장한다(ἵνα ὦσιν μετ' αὐτοῦ καὶ ἵνα ἀποστέλλῃ αὐτοὺς κηρύσσειν). 여기서 주절은 예수가 열둘을 임명하셨다는 내용이다. 이 본문은 열둘을 임명하심이 그들이 예수와 함께 거하고 그들이 설교하도록 파송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진술은 아니다. 왜냐하면 열둘의 임명 자체가 예수와 함께 거함을 결과시킬 이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파송 받아 설교하게 되는 일이 곧바로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ἵνα절들은 모두 목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 막 4:21에서도 ἵνα는 2회 등장한다(ἵνα ὑπὸ τὸν μόδιον τεθῇ ἢ ὑπὸ τὴν κλίνην; οὐχ ἵνα ἐπὶ τὴν λυχνίαν τεθῇ;). 말 아래나 침대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등불을 가져오는 동작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등불을 가져온 결과로서 방이 밝아진다는 진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등불을 가져온 결과가 등경 위에 두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ἵνα는 목적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막 6:41; 8:6에서도 ἵνα는 목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빵을 주신 것이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빵을 무리에게 분배하게 되는 충분한 원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6) 막 7:9에서 ἵνα는 결과절을 끌고 온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함이 그 자체로 바리새 전통을 세우는 원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7) 막 10:13에서 ἵνα절이 이끌고 오는 동작으로서의 안수는 아이들을 데려온 행위의 충분한 원인으로 여겨질 수 없다. (8) 막 15:11에서 ἵνα는 기대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주동사('선동하다')의 내용이 앞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선동함이 바라바의 석방을 기대하게 하는 충분한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9) 막 15:15, 20에서 ἵνα는 결과에 관한 기대를 담고 있지 않다. 예수를 내어주거나 이끌고 가는 행위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충분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충돌한다.[5] (5) 마가복음 10:17에서는 ἵνα와 연결된 주절의 동사는 '행하다'인데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므로, ἵνα가 그것을 행함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목적을 표현하는 부사절을 끌고 온다고 볼 때 문맥에 부합한다.

2.2. 목적과 결과 모두로 해석될 수 있는 용례

문맥이 여러 가지 해석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1) 마가복음 3:9; 5:23; 14:10, 12, 49에서 ἵνα절이 서술하는 내용은 나중에 이루어짐이 문맥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이것을 기대되는 결과를 이끌고 오는 절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주동사가 이루어지는 목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석해도 문맥에 부합한다.[6] (2) 마가복음 11:28에서 ἵνα절은 결과만이 아니라 목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에도 문맥에 부합한다.

2.3.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표현하는 용례

청유를 뜻하는 동사 뒤에 ἵνα가 나오는 경우(1:38),[7] 요청을 표현하는 동사 뒤에 ἵνα가 나오는 경우(막 5:10; 6:56; 7:26; 7:32; 8:22; 9:18),[8] 명령을 뜻하는 동사 뒤에 ἵνα가 나오는 경우(막 3:12; 5:43; 6:8; 7:36; 8:30; 9:9;

---

5) (1) 막 5:18에서 ἵνα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와 함께 가는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서 보면 귀신들린 자가 예수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막 6:36에서 ἵνα절은 결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주변 마을로 가지 않고도 광야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3) 막 9:22에서 ἵνα는 결과절을 끌고 오지 않는다. 아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막 10:48에서 ἵνα절은 결과를 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바디매오는 잠잠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질렀기 때문이다. (5) 막 12:2의 ἵνα는 결과절을 이끌고 오지 않는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6) 막 12:13의 ἵνα는 결과를 이끌고 오지 않는다.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를 말로 책잡지 못하였음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7) 막 14:12에서 ἵνα는 결과를 담고 있지 않다. 아직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 막 14:38에서 ἵνα는 결과를 담고 있지 않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9) 막 16:1의 ἵνα는 결과절을 이끌어 오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예수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6) 막 3:9의 두 번째 ἵνα절은 무리가 예수를 밀지 않음이 배를 준비할 때 기대되는 결과를 표현할 수도 있으나, 배를 준비하는 목적도 될 수 있다.

7) 막 1:38에서 ἵνα는 주변 마을로 가자는 청유와 연결된 것이므로 이러한 청유의 목적을 이끌고 온다고 볼 수 있다.

8) 이 구절들에서 ἵνα절은 요청함과 관련되는데, 요청한 내용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이 요청한 내용(즉 요청의 목적)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막 8:22에서는 예수가 손을 대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절에서야 묘사되는 점도 ἵνα절이 담은 내용을 결과로 볼 수 없게 한다.

13:34),[9] 원함을 뜻하는 동사 뒤에 ἵνα가 오는 경우(막 6:25; 9:30; 10:35, 51),[10] 기도함을 뜻하는 동사 뒤에 ἵνα가 오는 경우(막 6:25; 9:30; 10:35[2회]; 13:18; 14:35),[11] 허락함을 뜻하는 동사 뒤에 이것이 오는 경우(막 11:16)가 있다.[12] 이러한 경우에는 ἵνα절이 결과를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주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내용을 표현한다고 보고 '~하기를' 청유, 요청, 명령, 기도, 소원, 또는 허락한다고 번역하면 문맥에 부합한다.

주동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 ἵνα는 주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의 결과를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주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내용을 표현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온다고 볼 때 문맥에 부합한다(막 3:9; 6:12; 9:12; 10:37; 12:19; 15:21).[13] 이러한 경우, ἵνα절은 '~라고' 또는 '~는 것을'이라고 번역하면 문맥에 부합한다.

2.4. 결과를 표현하는 용례

마가복음에는 ἵνα를 결과에 관한 예측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때 문맥에 더욱 부합하는 경우도 있다. 마가복음 4:22에서 ἵνα는 목적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고, 결과를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감추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감추어진 것은

9) 이 구절들에서 ἵνα절은 예수가 명령하심과 연결되는데, 명령의 내용이 따로 언급되지 않았기에 ἵνα절이 명령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이 구절들에서 ἵνα절은 주절의 '원하다'를 주동사로 하는데 ἵνα절을 제외하면 원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므로 ἵνα가 원함의 내용을 끌고 온다고 볼 수 있다.

11) 이 구절들에서 ἵνα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비로소 ἵνα절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12) 막 11:16에서 ἵνα절과 연결된 주절의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ἵνα절은 주동사 '허락하다'의 목적어절이라고 볼 수 있다.

13) (1) 막 3:9에는 ἵνα가 2회 등장한다. 그 중 앞의 것은 배를 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ἵνα절을 제외하면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배를 준비함이 예수의 말씀하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이 ἵνα절은 주동사와 연결하여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하면 문맥에 부합한다. (2) 막 6:12에서 ἵνα절은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하였다는 동작과 연결되는데, 선포의 내용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ἵνα는 선포의 내용을 도입한다고 볼 수 있다. (3) 막 9:12에서 ἵνα는 기록된 내용을 도입하는 설명의 역할을 한다. (4) 막 10:37에서 ἵνα절과 연결된 주동사는 '주다'인데 무엇을 주었는지 아직 밝히지 않기에 ἵνα가 줌으로 인해 기대되는 결과를 표현할 수는 없다. 이것은 줌의 내용을 표현한다고 볼 때 문맥에 부합한다. (5) 막 12:19에서 주동사는 '기록하다'인데, 무엇을 기록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ἵνα는 기록의 결과 기대되는 것을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은 기록한 내용으로 보아 '~하라고 기록했다'라고 번역할 때 문맥에 부합한다. (6) 막 15:21에서 ἵνα절을 취하는 주동사는 '강제했다'인데, 무엇을 강제했는지 ἵνα절에서 비로소 명확해지므로, 이것은 강제함으로 기대되는 결과라기보다는 강제함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오히려 후자의 의미가 더 자연스럽다. 드러나게 하려고 감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 진술이다.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일부러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1:25에서 ἵνα절은 목적의 뜻으로도 결과의 뜻으로도 모두 문맥에 맞는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남을 용서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24절은 기도하고 구하며 받은 줄로 믿으면, 그 결과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24-25절의 평행 구조를 고려할 때, 이어지는 25절에서도 남을 용서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뜻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마가복음 15:32에서 ἵνα는 목적, 결과 어느 의미로 보든지 문맥에 부합한다. 우리를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믿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겠다.'는 결과적 의미가 좀 더 예수를 조롱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문맥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2.5. 마가복음 4:12의 문맥

마가복음은 ἵνα를 주로 목적('~하려고')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결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12에서 ἵνα가 결과를 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ἵνα 용례 중에서 마가복음 4:12의 문맥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마가복음 4:12의 ἵνα와 마태복음 13:13의 ὅτι가 아람어 ד('who', 'which')를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14]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ἵνα가 이 아람어처럼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다. 마가복음 본문 자체의 해석을 위해서는 마가복음의 ἵνα 용례들 중에서 문맥에 부합한 것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마가복음 4:12에서 ἵνα절이 주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명사절을 끌고 오는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가 검토해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면 ἵνα절은 11절에 나오는 동사 γίνεται의 목적어

14) M. Black, *An Aramaic Approach to the Gospels and Acts*, 3rd ed. (Oxford: Clarendon, 1967), 213.

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ἵνα절이 목적어절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ἵνα는 명사절로 앞에 언급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15]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ἵνα가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된 용례가 없다. 또한 마가복음 4:12를,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그러한 뜻으로 사용된 독특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여기에서 ἵνα가 설명하는 내용을 도입하려면, 비유로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ἵνα절에서 소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ἵνα는 마가복음 4:12에서 목적 또는 결과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목적('~하려고') 용법은 마가복음 4:12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 ἵνα가 목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면 예수가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이 깨닫지 못하도록 함인데, 이러한 해석은 마가복음 4:33과 충돌한다. 33절은 예수가 비유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καθὼς ἠδύναντο ἀκούειν) 가르치셨다고 한다.[16] 이것은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심으로써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진술이다. 이 진술은 비유 사용의 목적이 청중이 깨닫도록 함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비유의 사용이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12에서 ἵνα는 비유 사용의 결과로 보는 해석의 가능성만 남는다. 이 구절은, 비유의 목적이 깨닫도록 하는 것임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목적에도 청중이 주어진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것은 마치 씨앗 비유(4:3-9)가 열매 맺도록 하고자 뿌려진 씨앗들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들도 있음을 보여주는 문맥에 부합한다.

마가복음 12:12는 예수의 비유를 들은 적대자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 이것은 제자 집단 밖에 있는 자들도 비유를 듣고 알아들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17] 만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례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되고 만다. 따라서 비유의 목적이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고 보는 가설은 마가복음 본문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

15) 귈리히(R. A. Guelich)는 여기서 이 단어가 설명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Books, 1989], 211).

16) '듣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 ἀκούω는 셈족어의 경우처럼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D. S. McComiskey, "Exile and the Purpose of Jesus' Parables [Mark 4:10-12; Matt 13:10-17; Luke 8:9-10]", *JETS* 51 [2008], 82-83). 막 4:33의 경우,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다'로 볼 때 문맥에 부합한다.

17) R. A. Guelich, *Mark 1-8:26*, 209.

그러므로 이러한 마가복음 문맥 속에서 4:12의 ἵνα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때때로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 결과를 표현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청중이 비유를 깨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비유에는 해석이 없으면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해석이 주어지기까지 감추어진 부분이다. 그러나 마가복음 4:21-22에서 감춤의 결과(또는 목적)는 드러남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유 속에 감추어진 측면이 있고 설령 그렇게 감추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드러냄이라고 볼 때 마가복음의 문맥에 부합한다.[18] 그러므로 비유의 궁극적 목적이 깨닫지 못하게 숨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숨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비유마저도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근접 문맥인 마가복음 4:13-20에 의하면 씨앗이 열매 맺음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이 구절들은 이러한 차이가 말씀을 듣는 자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4:14는 씨앗이 말씀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말씀을 전함이 씨앗 뿌림으로 비유된 것이다. 이어지는 해석(15-19절)에 따르면 열매 맺지 못함은 말씀을 주신 분의 목적이 아니라 사탄의 방해 내지 말씀을 들은 자의 상태(환난, 박해, 염려, 유혹에 넘어짐)로 인한 결과이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청중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4:12를 해석하면 이어지는 13-20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결과에 봉착함은 제자들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마가복음 4:10은 제자들이 비유를 듣고 질문하였다고 하므로, 그들도 깨닫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11절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다고 한다. 문맥상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이란 13-20절에서 보듯이 비유에 관한 해석이다. 해석을 듣기 전에는 그들의 상태도 12절이 묘사하는 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처럼 제자들마저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비유 해석을 통해서라도 마침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가복음 4:11, 33-34는 '외인'(무리)에게는 해석 없이 비유(또는 수수께끼)만으로 가르치셨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

18) J. R. Kirkland, "The Earliest Understanding of Jesus' Use of Parables: Mark IV 10-12 in Context", *NovT* 19 (1977), 13도 이렇게 해석한다.

자체가 필연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유는 해석 없이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고, 심지어 수수께끼마저도 해답을 듣기 전에 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비유나 수수께끼로 말하는 대신 아무 발설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4:33이 언급하듯이 '많은 비유들로 반복하여 가르치셨다'(παραβολαῖς πολλαῖς ἐλάλει). 이처럼 많은 비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4:12에서 ἵνα가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표현한다고 해석하여 이 구절이 예수가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때때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 결과를 서술한다고 보는 것이 문맥에 부합한다.

레인(W. Lane), 파이스커(C. H. Peisker) 등은 마가복음 4:12의 ἵνα가 결과를 표현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19] 앞에서 살펴본 용례와 문맥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주장이 소수 의견이지만,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게 한다. 또한 이 단어를 "그래서"로 번역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의 번역도 이 단어의 용례와 문맥에 부합하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3. μήποτε의 용례와 마가복음 4:12의 문맥

마가복음 4:12의 해석과 번역에서 어려움을 주는 또 하나의 단어는 μήποτε이다. 이 단어는 주로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아람어 **דלמא**에 해당하는 말로서 '그렇지 않다면'(otherwise),[20] 또는 '~하지 않는다면'(unless)의 뜻을 가질 수 있다.[21] 그러므로 이 단어가 마가복음 4:12에서 '그렇지 않다면'을 뜻할 가능성이 있다.[22] 만일 이 단어가 여기서 그러

19) W.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Eerdmans, 1974), 159; C. H. Peisker, "Konsekutives ἵνα in Markus 4:12", *ZNW* 59 (1968), 127.

20) J. R. Kirkland, "The Earliest Understanding of Jesus' Use of Parables: Mark IV 10-12 in Context", 7.

21) 김선욱,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구약 인용(막 4:12; 마 13:13; 눅 8:10) 변형과 신학적 의의", 「신약연구」 20:1 (2021), 90; J. 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10. Auflag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13을 보라. 랍비들이 사 6:10을 용서의 약속으로 해석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지원한다(J. R. Kirkland, "The Earliest Understanding of Jesus' Use of Parables", 7). J. Jeremias, *Die Gleichnisse Jesu*, 13을 보라.

22) R. A. Guelich, *Mark 1-8:26*, 212.

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 구절은 '그렇지 않다면'(즉 비유를 듣고 깨닫는다면) 회개하여 용서받을 가능성을 열어 둔다고 볼 수 있다.

마가복음 본문을 번역할 때 뒤에 놓인 아람어 전승을 고려할 수 있다면, μήποτε가 아람어 דלמא처럼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과 함께 '만일 그렇지 않다면'을 뜻한다고 보는 해석이 더욱 받아들일 만하게 여겨질 수 있다.[23] 이러한 전승의 존재는 마가복음보다 오래된 원마가복음의 존재에 관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 이른 바 '사소한 일치'(minor agreement) 현상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마가복음 4:11-12의 경우, 이 구절의 마태복음(13:11, 13)과 누가복음(8:10) 평행구절들에서 발견되는 상호 일치 중에 마가복음에 불일치하는 것들도 있다. 이것들은 '사소한 일치'라고 불린다. 마가복음이 μυστήριον('신비')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한다.[24]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καὶ ἔλεγεν 대신 ὁ δὲ εἶπεν을 사용하는 것은 문체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γνῶναι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나 μήποτε ἐπιστρέψωσιν καὶ ἀφεθῇ αὐτοῖς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편집 과정에서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때로 마가복음보다 오래된 전승(Proto-Mark)을 사용하여 기록하기도 하였음을 암시하는 증거로 간주되기도 한다.[25] 그리하여 이러한 현상은 마가가 이 구절 등을 창작하여 지어내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증거로 사용되기까지 한다.[26]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본문을 해석하거나 번역할 때 아람어 전승을 번역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마가복음을 번역할 때 아람어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맥코미스키(D. S. McComiskey)는 마가복음 4:12에서 μήποτε가 '~하지 않도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μήποτε가 그리스어 문헌에서 '아마도'라는 뜻을 가질 수 있지만, 동사의 가정법 형태를 동반할 때에는 '아마도'라는 뜻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7] 그는 μήποτε가 동사 가정법을 끌고 올 경우 칠십인역이나 신약성서에서 '하지 않도록'(lest)의 뜻을 가지므로, 여기서도 그렇게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함께 나오

23) 이 아람어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는, M. Jastrow,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New York: The Judaica Press, 1992), 299를 보라.

24) J. Marcus,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Atlanta: Scholars Press, 1986), 76.

25) Ibid., 85.

26) Ibid., 84.

27) D. S. McComiskey, "Exile and the Purpose of Jesus' Parables", 62.

는 ἵνα도 '~하도록'이라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8]

그러나 맥코미스키가 제시한 증거는 부정확하다. 디모데후서 2:25의 용례는 μήποτε가 가정법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도 '아마도'(perhaps)의 뜻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29] 여기서는 이 단어를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문맥에 맞지 않고 '아마도'로 번역할 때 문맥에 부합한다. μήποτε를 '아마도'로 번역함은 아람어적 배경의 지지도 받는다. 아람어 דלמא는 '~하지 않도록'(lest)과 함께 '아마도'(perhaps)의 뜻도 가지기 때문이다.[30]

람페(P. Lampe)는 마가복음 4:12에서도 μήποτε가 '아마도'의 뜻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31] 마가복음 4:12에서 μήποτε를 가능성을 표현하는 '아마도'의 뜻으로 읽으면, 이 단어가 이끄는 절은 아마도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음을 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개연성을 언급한 후에, 역접 접속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회개의 가능성을 진술한다면, 근접 문맥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는 μήποτε를 '아마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μήποτε가 목적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앞에 나오는 ἵνα도 목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 맥코미스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μήποτε가 목적의 의미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해석할 경우에도 ἵνα는 얼마든지 결과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이켜 용서받지 않기 위하여(목적), 보기는 보아도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또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다(결과).' 이렇게 해석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뜻이 내포된다. 이러한 해석의 경우에도 청중이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게 되는 것은 비유를 주시는 예수의 의도는 아니다. 그러한 의도를 가진 자는 청중이다. 더구나 맥코미스키의 주장은 ἵνα와 μήποτε가 함께 나오지만 이 둘이 모두 결과를 의미하는 누가복음 14:29의 용례에 의하여 논박된다. 이 구절에서 ἵνα μήποτε는 '그리하여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하게 되는 결과를 도입한다.

---

28) Ibid., 60-61.

29) F. C. Synge, "A Plea for the Outsiders: Commentary on Mark 4:10-12",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30 (1980), 56.

30) M. Jastrow,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299.

31) P. Lampe, "Die markinische Deutung des Gleichnisses vom Saïmann: Markus 4:10-12", *ZNW* 65 (1974), 144.

마가복음 4:12 문맥상으로도, μήποτε는 목적을 표현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 회개하여 용서받지 않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깨닫지 않는 청중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μήποτε를 다른 가능한 의미인 '그렇지 않다면'으로 해석하면, 이 단어는 회개하지 않는 것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함의 결과로 제시하는 자연스러운 의미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μήποτε는 '그렇지 않다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부합한다.

이러한 해석은 마가복음 4:12의 원격 문맥에도 부합한다. 마가복음 1:15에서 예수는 '회개하라'고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의도이다. 따라서 4:12에서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의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1:15의 내용과 충돌한다. 회개하지 않음은 비유를 들은 자가 결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반응에 해당할 뿐이라고 볼 때 두 구절은 서로 부합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12에서 이 단어를 "그러니까 ~ 못합니다"라고 번역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의 번역은 마가복음 문맥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된 동사가 가정법 형태로 되어 있음도 고려하여, '그러니까 ~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4. 마가복음 4:12와 상호본문성

4.1. 평행 본문 비교

마가복음 4:12의 평행 본문도 ἵνα를 결과적 의미로 해석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3:13은 ἵνα 대신 ὅτι를 사용한다. 그런데 ὅτι는 칠십인역(창 20:9; 사 14:3; 삼상 20:1; 왕상 18:9)뿐 아니라, 신약성서(요 7:35; 14:22; 히 2:6)에서도 결과('so that')를 나타나는 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32] 따라서 마태복음 13:13에서도 ὅτι가 결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33]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을 경우, 마태복음의 ὅτι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 4:12의 ἵνα를 결과적 의미로 해석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마태복음 13:13의 ὅτι가 흔히 사용되는 '왜냐하면 ~ 때문이다'(이유)라는

32) 정창욱, "Quotation of Isaiah 6:9-10 in Matthew 13:14-15", 「성경원문연구」 26 (2010), 143.
33) Ibid.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이 구절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친다는 의미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가르침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의미가 배제된다. 따라서 이렇게 볼 경우에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 4:12의 ἵνα가 목적의 의미로 해석되는 일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마가복음 우선설을 가정하고 본다면,[34] 마태복음 13:13은 마가복음의 저자와 동시대에 마가복음 4:12를 읽은 독자가 이 구절을 이해한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마가복음 4:12의 ἵνα절이 비유를 사용한 목적을 서술한다고 해석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마가복음 우선설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에게는 마가복음 4:12를 결과절로 해석하는 것을 지원하는 보조적 증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4.2. 고대인들의 비유관

비유의 목적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마가복음 문맥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유에 관한 고대인들의 생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플라톤의 작품(*Phaedrus*, 246)에서 소크라테스는 비유를 통해 영혼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은유적 언어를 효과적 소통 수단으로 간주한다.[35] 아리스토텔레스(*Rhetoric*, 제3권)와 키케로(Cicero, *De Oratore*, 3.39)도 은유적 언어의 목적은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36] 집회서 39:2-3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는 비유에 담긴 은밀한 의미도 파악할 것이라고 한다.

4.3. 이사야 6:9-10 비교

마가복음 4:12는 이사야 6:9-10을 사용한다. 이것은 직접 인용이 아니며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인유'(allusion) 또는 동양의 주석학인 훈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화용(化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의 자료 사

34) 원마가복음설을 가정하고 볼 경우에도, 마가복음의 초고인 원마가복음이 이것을 탈고하여 출판한 마가복음과 매우 유사하였을 것이므로, '사소한 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원마가복음 가설은 편의상 마가복음 우선설을 작업 가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우선설을 전제할 경우에는 마태복음/누가복음이 마가복음과 다른 부분에서 마태복음/누가복음의 의도를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누가복음의 편집이 아니라 전승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 D. V. Urban, "Obscurity and Intention in Mark 4:11-12", 114-115.

36) Ibid., 116-117.

용이다. 따라서 이 구약 본문의 의미에 부합하는 의미가 마가복음 4:12의 의미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사야 6:11-12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한시적임을 알려준다. 또한 이사야 29:18; 35:5는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여 마가복음 4:12를 해석하더라도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는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37] 또한 이사야 6:10(칠십인역)은 γάρ('왜냐하면')를 사용하며 백성들이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ἐπαχύνθη γὰρ ἡ καρδία τοῦ λαοῦ τούτου).[38] 따라서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마가복음 4:12를 해석할 경우에도 깨닫지 못하는 책임은 청중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마가복음 4:12는 이사야 6:9-10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두 본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히브리어 본문 이사야 6:10에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השמן לב־העם)라는 명령이 나오는 점에서 마가복음 본문과 매우 다르다. 마가복음 4:12에는 히브리어 본문과는 달리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없다.

마가복음 4:12는 히브리어 본문보다는 칠십인역 본문과 좀 더 유사하다. 이 두 본문에서 서로 평행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마가복음 4:12 βλέποντες βλέπωσιν καὶ μὴ ἴδωσιν, καὶ ἀκούοντες ἀκούωσιν καὶ μὴ συνιῶσιν, μήποτε ἐπιστρέψωσιν καὶ ἀφεθῇ αὐτοῖς.
> 이사야 6:9-10 … ἀκοῇ ἀκούσετε καὶ οὐ μὴ συνῆτε καὶ βλέποντες βλέψετε καὶ οὐ μὴ ἴδητε … μήποτε … ἐπιστρέψωσιν καὶ ἰάσομαι αὐτούς

칠십인역 이사야 6:9-10	마가복음 4:12
βλέποντες βλέψετε	βλέποντες βλέπωσιν
οὐ μὴ ἴδητε	μὴ ἴδωσιν
ἀκοῇ ἀκούσετε	ἀκούοντες ἀκούωσιν
οὐ μὴ συνῆτε	μὴ συνιῶσιν
ἰάσομαι αὐτούς	ἀφεθῇ αὐτοῖς

37) '영이 혼미한 자도 명철하게 되고'(사 29:24),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사 35:5)을 기대하는 이사야서의 문맥을 고려하면, 사 6:9-10의 심판적 명령도 한시적이므로, 이 구절을 연상시키는 막 4:12도 결국은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양용의,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0], 106).

38) 김선욱,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구약 인용(막 4:12; 마 13:13; 눅 8:10) 변형과 신학적 의의", 83.

이 두 본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의 βλέψετε('너희가 볼 것이다')를 가정법 βλέπωσιν('그들이 볼 것이다')로 바꾸었다. 이것은 보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이사야서와 달리 볼 수 있는 개연성을 인정하는 표현이며 그들이 보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 두는 표현이다. (2) 마가복음은 동족 여격과 미래 직설법으로 된 이사야서의 ἀκοῇ ἀκούσετε('너희는 분명히 들을 것이다')를 분사와 가정법으로 된 ἀκούοντες ἀκούωσιν('그들이 분명히 들을 것이다')로 하여 유사한 뜻의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나 직설법 대신 가정법을 사용하여 강조의 정도가 약해진다. (3)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의 οὐ μὴ ἴδητε('너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를 μὴ ἴδωσιν('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으로 바꾼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정의 정도가 상당히 약해졌다. 마가복음은 비유(수수께끼)를 들은 자가 이해할 가능성을 열어 둔다. (4)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의 οὐ μὴ συνῆτε('너희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를 μὴ συνιῶσιν('그들이 깨닫지 못할 수 있다')로 바꾼다. 깨닫지 못함을 부정하는 강도가 약해지면서 깨달을 가능성도 열어 둔다. (5)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의 ἰάσομαι αὐτούς('내가 그들을 치유할 것이다') 대신에 ἀφεθῇ αὐτοῖς('그들에게 용서될 것이다')를 사용한다. 여기서 마가복음은 미래형 대신에 가정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개연성과 함께 용서받을 가능성을 좀 더 열어 둔다.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진 이사야 6:9-10 본문이 마가복음 4:12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두 본문 사이의 차이 속에 마가복음 4:12의 강조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탈굼 이사야 6:9-10은 마가복음의 βλέποντες βλέπωσιν과 ἀκούοντες ἀκούωσιν처럼 보고 듣는 주체를 3인칭으로 하고 분사를 사용하며 마가복음의 ἀφεθῇ에 해당하는 동사도 마가복음처럼 수동태로 사용하여 마가복음과 유사하지만, 다른 여러 부분에서 마가복음과 동일하지 않다.[39] 그러므로 마가복음 4:12가 칠십인역과 다른 부분이 이 탈굼 본문을 인용하여 발생하였다고 설명할 수 없다.

사용된 구약 본문과 비교할 때 마가복음 본문에서 발견되는 독특성에는 마가복음의 독특한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칠십인역 이사야 6:9-10의 흐름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인정하지만,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 둔다. 또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39) Ibid., 84-85.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깨달을 가능성을 열어 둔다. 또한 마가복음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개연성을 언급하면서도, 회개하여 용서받을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드러나는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듣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용서받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 사람에게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5. 마가복음 4:12의 분사 번역

마가복음 4:12의 번역을 위해서는 이 구절에서 동족의 동사가 분사형을 취하여 주동사를 한정하는 βλέποντες βλέπωσιν과 ἀκούοντες ἀκούωσιν을 번역하는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보기는 보아도"와 "듣기는 들어도"로 번역하였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은 "보고 또 보겠지만"과 "듣고 또 듣겠지만"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ESV, NRS, RSV는 이 구절에서 이 분사들을 "indeed"로 번역하였다. 그리하여 ESV와 RSV는 이 부분을 "they may indeed see"와 "may indeed hear"로 번역하였고, NRS는 이 부분을 "they may indeed look"과 "may indeed listen"으로 번역하였다.

이 분사들은 히브리어 부정사의 경우처럼 강조 용법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용법은 신약성서와 칠십인역에서 발견된다.[40] 사도행전 7:34는 출애굽기 3:7의 ἰδὼν εἶδον('내가 확실히 보았다')을 그대로 사용하며, 히브리서 6:14은 창세기 22:17의 εὐλογῶν εὐλογήσω('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를 그대로 사용한다. 마태복음 13:14는 이사야 6:9의 βλέποντες βλέψετε('너희가 확실히 볼 것이다')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한 용례들에서 보듯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칠십인역뿐만 아니라 칠십인역 본문을 사용하는 신약성서 구절에서도 히브리어 독립 부정사가 동사를 강조하는 것에 해당하는 강조적 동족 분사 사용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12에서 사용된 동족 분사들도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사들을 "indeed"로 번역한 ESV, NRS, RSV 등의 번역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βλέποντες βλέπωσιν과 ἀκούοντες ἀκούωσιν은 '그들은 분명히 볼 것이다'와 '그들은 확실히 들을 것이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

40) M. Zerwick, *Biblical Greek*, J. Smith, ed.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63), 128.

6. 맺음말

마가복음 4:12에서 ἵνα는 결과절을 끌고 온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4:22; 11:25; 15:32에서도 결과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마가복음 용례상 가능하다. 만일 12절에서 ἵνα가 목적을 표현한다고 해석하면, 예수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의미를 형성한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다고 하는 마가복음 4:33(καθὼς ἠδύναντο ἀκούειν)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ἵνα절이 비유의 목적을 알려준다고 보는 해석은 감춘 것의 목적은 드러냄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4:21-22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사야 6:9-10과 마가복음 4:12를 비교할 때에도 이러한 해석은 지지받는다. 이사야 6:11-12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한시적임을 알려주고, 이사야 29:18; 35:5는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된다고 한다. 이사야 6:10(칠십인역)은 백성들이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여 마가복음 4:12를 해석하더라도 예수의 비유가 청중이 계속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자 채택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마가복음 4:12에는 히브리어 이사야 6:10 본문과는 달리 깨닫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없다. 마가복음 4:12는 칠십인역 이사야 6:9-10과도 다르다.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의 οὐ μὴ ἴδητε(‘너희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를 μὴ ἴδωσιν(‘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으로 바꾸고, 이사야서의 οὐ μὴ συνῆτε(‘너희가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를 μὴ συνιῶσιν(‘그들이 깨닫지 못할 수 있다’)으로 바꾼다. 이것은 칠십인역과 달리 깨달을 가능성을 좀 더 열어 둔 표현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마가복음 4:12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없게 한다.

12절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μήποτε는 주로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μήποτε는 아람어 **דלמא**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다면’(otherwise), ‘~하지 않는다면’(unless), 또는 ‘아마도’(perhaps)의 뜻을 가질 수도 있다. μήποτε가 그리스어 문헌에서 ‘아마도’라는 뜻을 가질 수 있지만, 동사 가정법을 동반할 때에는 ‘아마도’의 뜻을 가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25의 경우처럼 μήποτε가 가정법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도 μήποτε가 ‘아마도’(perhaps)의 뜻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4:12에

서 이 단어를 '아마도'의 뜻으로 번역하면 갑작스럽게 회개의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므로, 깨닫지 못하는 개연성을 말하고 있는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4:12에서 이 단어를 '~하지 않도록'이라고 번역하여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의도라고 해석하는 것도 예수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음을 소개하는 1:15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단어는 '그렇지 않다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해석은 ἵνα μήποτε를 '그리하여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누가복음 14:29의 용례에도 부합한다.

한편 마가복음 4:12에서는 동족의 동사가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주동사를 한정하는데, 이것은 분사가 히브리어 부정사의 경우처럼 강조 용법을 위해 사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상의 고려를 종합하면 마가복음 4:12를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하여 그들은 분명히 보더라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며,
> 또한 확실히 듣더라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돌이켜 용서받을 것이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의 번역은 이 구절에서 ἵνα와 μήποτε를 결과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번역한 점에서 이 난해한 구절을 용례와 문맥에 부합하게 잘 번역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구절에서 동족 분사의 사용을 "보고 또 보겠지만"과 "듣고 또 듣겠지만"으로 번역한 부분은 동족 분사를 사용한 칠십인역과 신약성서의 용례에 부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마가복음 4:12, 비유, 예수, 결과, 목적.
Mark 4:12, parable, Jesus, result, purpose.

(투고 일자: 2022년 1월 24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김선욱,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구약 인용(막 4:12; 마 13:13; 눅 8:10) 변형과 신학적 의의", 「신약연구」 20:1 (2021), 76-118.

양용의,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0.

정창욱, "Quotation of Isaiah 6:9-10 in Matthew 13:14-15", 「성경원문연구」 26 (2010), 137-154.

Black, M., *An Aramaic Approach to the Gospels and Acts*, 3rd ed., Oxford: Clarendon, 1967.

Guelich, R. A.,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Books, 1989.

Jastrow, M.,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New York: The Judaica Press, 1992.

Jeremias, J., *Die Gleichnisse Jesu*, 10. Auflag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Kirkland, J. R., "The Earliest Understanding of Jesus' Use of Parables: Mark IV 10-12 in Context", *NovT* 19 (1977), 1-21.

Lampe, P., "Die markinische Deutung des Gleichnisses vom Säimann: Markus 4:10-12", *ZNW* 65 (1974), 140-150.

Lane, W.,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Eerdmans, 1974.

McComiskey, D. S., "Exile and the Purpose of Jesus' Parables (Mark 4:10-12; Matt 13:10-17; Luke 8:9-10)", *JETS* 51 (2008), 59-85.

Marcus, Joel,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Atlanta: Scholars Press, 1986.

Peisker, C., "Konsekutives ἵνα in Markus 4:12", *ZNW* 59 (1968), 126-127.

Strauss, M. L., *Mark*,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4.

Synge, F. C., "A Plea for the Outsiders: Commentary on Mark 4:10-12",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30 (1980), 53-58.

Urban, D. V., "Obscurity and Intention in Mark 4:11-12: Jesus' Parabolic Purposes", *Calvin Theological Journal* 49 (2014), 112-132.

Zerwick, M., *Biblical Greek*, J. Smith, ed.,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63.

<Abstract>

Translation of Mark 4:12: Purpose or Result?

Hyeon Woo Shin
(Chongshin University)

In Mark 4:12, ἵνα probably introduces a result clause as in Mark 4:22; 11:25; 15:32. If the word is interpreted as introducing a purpose clause, 4:12 could mean that Jesus taught the people in parables so that they would not understand the meaning. If so interpreted, v.12 does not fit with v.33 which says that Jesus taught people in parables just as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In addition, such an interpretation does not fit with v.22 which says that the purpose of concealing is to reveal. Further, it does not correspond with Mark 12:12 which states that Jesus' opponents actually understood the parable. As such, Mark's literary context does not lead us to consider Jesus' parables to have been means of misunderstanding.

Our interpretation is supported by Mark's redactional use of the Old Testament. Mark 4:12 does not use Isaiah 6:9-10 (LXX) as it is. Mark changes οὐ μὴ ἴδητε and οὐ μὴ συνῆτε ("you will never understand") into μὴ ἴδωσιν and μὴ συνιῶσιν ("they could not understand"). As such, Mark does not fully close but rather open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In v.12, μήποτε may mean *otherwise*, which is also a possible meaning in its Aramaic counterpart דלמא. If the word is interpreted as *lest* here, v.12 does not cohere with Mark 1:15 which reports that Jesus commanded repentance. Luke 14:29's use of ἵνα μήποτε in the meaning of *so that otherwise* also supports this interpretation.

The use of cognate participles (βλέποντες βλέπωσιν, ἀκούοντες ἀκούωσιν) in v.12 reflects Hebrew usage of the infinitive for emphasizing the verb. Such a usage is found not only in the LXX (Gen 22:17; Exo 3:7; Isa 6:9) but also in the NT (Mat 13:14; Act 7:34; Heb 6:14). Likewise in Mark 4:12, the participles does not mean *seeing* or *hearing* but *indeed*.

On the basis of these considerations, Mark 4:12 may be translated as follows: *As a result, they may indeed see but could not know, and they may indeed hear but could not understand. Otherwise, they might repent and be forgiven*.